

바리스타·방역·환경관리... 이통사 'AI생활형 로봇' 승부수

SKT, 고객 맞춤형 AI 로봇키트 출시
KT, '디지코'로 변화 기업가치 ↑
LGU+, LG전자와 로봇 사업 추진



SKT가 최근 출시한 AI 바리스타로봇을 통한 서비스 이용 모습. /SKT

이제 식당을 방문하면 로봇이 서빙을 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대형 쇼핑몰이나 공항을 가면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배송로봇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객실 앞까지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준다. 또 밤에는 깜깜한 공원을 순찰로봇이 돌며 방문객들에게 위협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지 확인하고, 위협한 상황이 생길 경우, 바로 보안요원을 호출하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 방역로봇, 환경관리로봇 등 로봇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들이 로봇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21일 시장조사업체인 브랜드에센스마켓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44조원 규모에서 2027년 177조원으로 4배 가량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의 현 로봇 시장은 2023년

831억달러 규모로 13%의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인건비 급등으로 생산라인에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로봇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로봇 사업을 통해 고객사에서는 필요하지만 로봇 제조사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AI 기반 응용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는 개인은 물론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봇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우선 이번엔 AI 로봇키트를 출시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배 이상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SKT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로봇키트 보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SKT는 또 SK윌더스, 로봇 전문업체인 뉴빌리티와 AI 순찰 로봇을 공동 개발해 연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쌍문근화캠퍼스에서 AI 순찰 로봇에 대한 이 로봇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디지코(DIGICO)'로의 변화를 선언하며, KT의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T AI 로봇 사업단이 2021년 출범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DX) 가속화를 위해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AI 기반 로봇을 향후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AI, 네트워크, 자율주행, 원격관제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해, 고

객 경험을 혁신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앞으로 배송과 물류, 환경, F&B 등 신규 영역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KT는 또 최근 캠핑톡, 캠핑아웃도어와 MOU를 체결하고 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사는 캠핑장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의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환경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 로봇과 5G 로봇이 도로 공사현장에서 이용해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또 약제로봇을 병원에 공급하는 등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LG전자 R&D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과 LG전자 로봇 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를 통해 클라우드 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했다. 클라우드 로봇(브레인리스 로봇)은 주로 LTE 이동통신을 통해 구현됐지만 높은 지연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감지와 장애물 회피 등 안정적인 주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LG전자의 5G SA(단독모드) 산업용 단말이 장착된 클라우드 로봇은 건물벽이나 출입문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해 지도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지해 회피하는 등 주변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함께 서빙·배송·안내 서비스 관련 로봇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서빙로봇 LG 클로이 서브봇을 연내 상용화하고, 로봇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채유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뛰는 ETF 위에 나는 NH다이렉트인덱싱

>> 1면 '기사제목'서 계속

NH전문가 추천 인덱스를 마음대로 조정하자
내가 원하는 종목은 더하고! 내키지 않는 종목은 빼고!

ETF로 부족할 때 NH다이렉트인덱싱

[투자주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유에 따라 예금저축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은 시장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 수익률 기록이 선행투자 실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률은 세금·수수료·판매비·판매수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 기록이 선행투자 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수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 국내 주식매매 시 수수료는 연 0.01%~0.50% 오프라인 0.40%~0.50% (수수 셋째자리 반올림) 증권거래세 / 매체 별 상이하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재투자계약 체결 시 수수료는 연 0.5%로 보기 단위로 후취하며, 일본기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증권거래세·용기·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거래 시 보수(ETF별상이)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2-0037호 (2023-02-07 ~ 2024-02-08)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LG전자, 로보스타 인수 등 로봇육성 집중

>> 1면 '사람 대신 후 충전'서 계속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전기차 충전기의 케이블을 직접 차량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로봇이다.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산업용 로봇업체인 로보스타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로봇 사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아크릴, 보사노바로보틱스 등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어갔다.

LG전자는 2019년 로봇산업센터를 신설했고, 2020년 초에는 'LG 보스턴로보틱스랩'을 설립했다. 지난 2020년 연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사업센터를 비즈니스솔루션(BS) 사업본부 내 로봇사업담당으로 재편해 이관했다. BS사업부는 로봇·AI 등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인 셈이다.

LG전자는 로봇 사업과 함께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자율공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제품의 제조와 검사, 포장 등 전체 생산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과 품질 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로봇 개발업체 지분을 매입하며 '로봇' 시장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로봇사업화 테스크포스를 '로봇사업팀'으로 격상한 뒤 관련 사업을 본격 준비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4.8%를 277억8365만원에 사들이며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로봇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다족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 협동로봇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과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이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와 포스코ICT가 협동로봇 기업인 뉴로메카인수를 준비하고 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이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